

## 폭행치사·절도

[대구지법 2008. 12. 17. 2008고합783]



### 【판시사항】

- [1]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,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(적극)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
- [2]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,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,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,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
- [3]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

### 【판결요지】

- [1]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,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. 먼저,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예컨대,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. 다음으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·정도 및 방법,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, 피해자의 사인,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.
- [2]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,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,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.
- [3]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.

### 【참조조문】

- [1] 형법 제15조 제2항, 제17조, 제262조
- [2] 형법 제15조 제2항, 제17조, 제262조
- [3]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, 제49조 제2항

### 【참조판례】

- [1]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2도697 판결(공1983, 461),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도2433 판결(공1986, 1420),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도556 판결(공1989, 1717)

**【전문】**

**【피 고 인】**

**【검 사】** 민영현외 1인

**【변 호 인】** 변호사 전정호

**【배 심 원】** 7인

**【주문】**

**】**

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**【이유】**

**】**

**【이유】**

**】**

**【이유】**

**】**

**【이유】**

**】**

**【이유】**

**】**

**【이유】**

**】**